

<길>

담양 메타세쿼이아 길.
양산 통도사 소나무 숲길.
부산 범어사 등나무 숲길.
강화 나들길.
남산 둘레길.
월정사 전나무 숲길.
부안 내소사를 오르는 길.

수많은 아름다운 길 중 내가 가장 좋아하는
길은 집으로 돌아가는 길.
보잘것없는 내가 누군가에게 전부가 될 수
있음을 확인시켜 주는 따뜻한 길.

